

#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4-24】

2014. 11. 3

## 터키 전력산업 현황과 전망

### 목 차

I. 전력수급 현황 및 전력산업의 최근 동향	1
II. 전력산업 구조 및 개발계획	6
III. 향후 전망	10

작성 :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조사역 김찬수 (3779-5703)  
[avik@koreaexim.go.kr](mailto:avik@koreaexim.go.kr)

확인 :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조사역 조양현 (3779-5711)  
[yhjo@koreaexim.go.kr](mailto:yhjo@koreaexim.go.kr)



□ 터키와 우리나라 간에 '12. 8월 체결된 FTA가 '13. 5월 발효되는 등 터키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음. 2014년 10월 우리기업의 가스복합화력 발전플랜트 수주<sup>1)</sup> 등 거래가 추진되고 있는 터키 전력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 I. 전력수급 현황 및 전력산업의 최근 동향

### □ 전력 생산 및 소비 현황

- 터키 전력 생산량은 2012년 228.1TWh<sup>2)</sup>에서 2013년 236.9TWh로 3.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는 249.4TWh 수준으로 예상됨.
- 2013년 기준으로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화력 71.7%, 수력 24.8%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은 3.5%이며 2014년에는 화력, 수력,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각각 70.8%, 25.1%, 4.1%로 예상됨.
- 터키 전력 소비량은 2012년 191.7TWh에서 2013년 201.3TWh로 5.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는 212.8TWh 수준으로 예상됨.

<표 1> 터키 전력 생산·소비 현황

단위: TWh

	2012	2013 <sup>e</sup>	2014 <sup>f</sup>
전력생산	228.1	236.9	249.4
- 화력발전	163.7	169.7	176.6
· 천연가스	98.5	102.5	106.9
· 석탄	62.0	64.1	66.7
· 석유	3.2	3.2	3.1
- 수력발전	57.3	58.7	62.5
- 재생에너지	7.1	8.4	10.3
전력소비	191.7	201.3	212.8

자료: BMI.

1) 삼성물산은 2014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민간개발업체 ACWA Power International과 터키 키리칼레 지역에 950MW 규모의 민자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설계·구매·시공을 597백만 달러에 수주함.

2) 1TW(테라와트)는 1조 W임.



## □ 화력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

- 2013년 기준으로 화력발전 비중은 71.7%로 천연가스, 석탄, 석유가 각각 43.3%, 27.1%, 1.3%를 차지함.
- 2013년 기준 천연가스는 터키 총전력생산의 43.3%를 차지하는 등 가장 중요한 발전원임.
  - 독일 RWE와 터키 TURCAS의 조인트벤처는 2013년 중반 775MW<sup>3)</sup> 규모의 가스화력발전소 건설을 완료함.
  - 그리스 METKA는 2013년 9월 Samsun에 위치한 870MW 규모의 복합가스화력발전소 건설을 완료했고 2014년 5월에는 Denizli 지역에 800M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발표함.
- 터키의 천연가스 생산은 미미한 수준이며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음. 러시아와 이란 등으로부터의 가스수입<sup>4)</sup> 의존도를 줄이고 발전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터키 정부는 자국 내 석탄<sup>5)</sup>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석탄자원을 이용한 발전을 우대함.
  - 2013년 5월 터키 정부는 2012년 6월 실시된 석탄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sup>6)</sup>함.
- 터키는 250억 달러의 투자자금을 유치해 2023년까지 석탄화력발전으로 전력의 30%를 생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1MW(메가와트)는 1백만 W임.

4) 이스라엘은 2010년 근해에서 발견된 Leviathan 가스전(4,600m<sup>3</sup> 규모로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발견된 천연가스전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짐)의 천연가스를 터키로 수출하기로 결정하였고 터키도 가스운송을 위해 양국을 잇는 470km의 가스관 건설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

5) 터키 정부는 터키 갈탄 매장량 118억 톤, 석탄 매장량 13억 톤 수준으로 추정

6) 신규설비 투자 석탄생산자에 대해 세금감면혜택이 많은 저개발지역 공업지구에 준하는 혜택 부여 등



### 주요 사업내용

- 터키 건설회사 Kolin Insaat는 2012년 10월 Manisa-Soma 지역에 45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약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 터키 Alarko Holding과 Cengiz Holdings의 조인트벤처인 Cenal Elektrik Uretim은 2013년 4월 1.32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발전허가서를 수령함.
- 2013년 2월 지멘스는 IPP Cengiz Enerji에 대한 장비 공급 주문을 수주함. Cengiz Enerji는 약 600MW 규모의 Samsun Cengiz Enerji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할 예정임.
- 터키의 Hattat Holding과 중국의 Harbin Electric International은 2013년 5월 24억 달러를 투자해 Amasra 지역에 2,64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합의함.
- 터키는 2013년 6월 5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 Afyon 지역에 3,5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알려짐.
- 터키 Izdemir Enerji Elektrik Uretim은 2014년 4월 Izmir 지역에 35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개시함.

### □ 수력발전 비중 24.8%이며 잠재력도 높은 수준

- 터키의 수력 발전량은 2013년 기준 58.7TWh로 총 발전량 대비 24.8% 수준임. 수력 발전에 중요한 강으로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 있음.
- 터키의 수력발전 잠재력<sup>7)</sup>은 연간 433TWh 수준으로 유럽 전체의 약 14%에 해당하는 수준임.

7) gross hydropower potential 기준이며 technical potentials은 216TWh 수준임.



- 2011년 5월 국제 심포지엄 발표자료에 의하면, 터키 정부는 장기적으로 332개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19GW의 전력생산능력을 확충할 예정임.
- 수개의 프로젝트가 계획중이거나 건설중으로 터키의 향후 발전방식으로 수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 특히, South-eastern Anatolia Project는 투자규모 32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수력발전 사업으로, 사업 종료시 7,500MW의 발전능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 재생에너지 발전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성장잠재력 보유

- 터키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3년 기준 8.4TWh로 총 발전량 대비 3.5% 수준임. 터키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풍력, 지열<sup>8)</sup>, 태양열 등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터키 풍력 발전능력은 에게해와 마르마라해 지역 등을 중심으로 2013년 기준 3GW 수준이며 터키 정부는 풍력 발전능력을 2023년까지 20GW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
- 터키 에너지시장규제청(EMRA)<sup>9)</sup>는 2014년 5월 총 600MW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입찰에 붙였는 바, Elazig 및 Erzurum 지방에서 각각 8MW와 5MW급 2개의 프로젝트가 낙찰되었으며 나머지는 2014년 말까지 낙찰 될 것으로 보임. 장기적으로 터키정부는 2023년까지 터키 전역에 3G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계획임.
- 최근 국제유가 약세는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요위축 우려 등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터키가 EU에 가입할 경우 EU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최소 27%로 높여야하므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8) 터키 지열에너지 잠재력은 세계 7위, 유럽 1위 규모임.

9) Energy Market Regulatory Authority



<표 2>

터키의 주요 전력 프로젝트 추진 현황

사업명	사업금액 (백만 달러)	발전능력 (MW)	기업명	사업단계
Denizli Combine Cycle Gas Power Plant, Kaklik	825	800	RWE Group(Operator) (70%), Turcas (Sponsor) (30%)	완공 (2014년 5월)
EGL gas-fired power plant	731	800	EGL International	계획단계 (2008~)
Samsun gas fired power plant	670	890	Met Group, Lehman Brothers(Financier), OMV	완공 (2013년 9월)
Ilisu Dam and hydropower plant	1,640	1,200	Temelsu, Stucky Ltd, Rast Constructions, Maggia Engineering, Colenco, Alstom SA, VA Tech Hydro, Ed Zublin, Cengiz Insaat(Holdings), Nurol, Dolsar	건설중 (2007~2014)
Verbund power plants	4,826	5,000	Sabancı Holding, Verbund	건설중 (2008~2015)
CCGT Power Plant Project Erzin Hatay	-	904	Gama Holding, Akenerji, General Electric	운영중
South-eastern Anatolia Project (GAP) for construction of dams and power plants on the Euphrates and Tigris rivers	32,000	7,500	-	건설중 (~2015)
Kirikkale Natural Gas Combined Cycle Power Plant, Central Anatolia	900	840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EBRD) (Financier), Eser Holding, ACWA Power International, Mott MacDonald	건설중 (~2016)
Afsin-Elbistan coal fired power complex	8,000	7,000	TAQA(Abu Dhabi National Energy Company)	자금조달 지연
Sinop Nuclear Power Station	22,000	4,800	Mitsubishi Heavy Industries, Areva	계획단계
Akkuyu Nuclear Power Plant Project, Mersin	20,000	4,800	Rosatom	연기중
Amasra coal fired power plant, Bartin province	2,400	2,640	Harbin Electric International (HEI), Hattat Holding	계약 낙찰 (2013년 5월)

자료: BMI.



## □ 전력 송전망 확대 계획

- 터키송전회사(TEIAS)는 발전능력 확대에 맞추어 송전망 확대 프로그램 계획을 계획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터키는 2008년 2월 그루지아를 경유하여 아제르바이잔과 터키를 연결하는 송전선을 건설하기로 합의함.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는 2012년 3월 중동지역 정치상황 안정시까지 전력망 연결 계획이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함.
  - 세계은행은 2014년 5월 송전망 확충 등을 위해 터키에 3.5억 달러<sup>10)</sup>의 차관을 승인함.
- 터키 전력 송배전 손실 규모는 전력망 손실 3.4TWh 및 배전 손실 19.8TWh 등 2012년 기준 전력생산량의 10.2%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동부 지역의 경우, 전력 송배전 손실 및 절도 규모가 생산 전력의 최대 6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II. 전력산업 구조 및 개발계획

### □ 발전 및 배전 부문 민영화 등 민간 참여확대 추진

- 터키는 2001년 3월 전력시장법(Electricity Market Law)을 시행하는 등 전력시장 자유화를 추진해 옴.
  - 동법 시행으로 국영 터키발전·송전공사는 발전회사, 송전회사, 전력거래 계약회사로 분리됨.

10) 3.0억 달러는 IBRD가, 0.5억 달러는 Clean Technology Fund가 지원



변경전	변경후
- 터키발전·송전공사(Turkish Electricity Generation and Transmission Corporation: TEAS)	- 발전회사(Turkish Electricity Generation Company: EUAS) - 송전회사(Turkish Electricity Transmission Company: TEIAS) - 전력거래계약회사(Electricity Trading and Contracting Company: TETAS)

- 최종적으로는 발전 및 배전 회사 민영화를 목표로 하며 송전 부문 (TEIAS)은 정부가 계속 운영할 예정임.
- 또한 전력부문과 천연가스 시장을 감독하는 에너지시장규제위원회<sup>11)</sup>가 탄생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전력요금 설정, 허가증 발급, 독점 방지 등을 관할하고 있음.
- 에너지시장규제위원회는 2006년 8월, 터키 20개 지역 전력망의 민영화를 승인하였으며 이후 전력망과 발전소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짐.
- 2010~2012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로 발전자산 매각이 영향을 받는 등 정부의 민영화 추진 노력이 차질을 빚음.
- 2013년에는 전력시장 민영화와 에너지거래소 설립 등 전력규제를 개선하고 전력시장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신전력시장법이 3월 시행되고 18개 국영 배전회사 매각이 완료되는 등 전력시장 자유화가 진전됨.
- 2013년 10월 발표된 계약에 따르면 현지 에너지회사 Enerjisa가 Toroslark Elektrik Dagtim을 17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18개의 터키 국영 배전사 매각에 따른 정부수입이 127억 달러에 달함.
- 터키 국영발전회사(EUAS)가 여전히 터키 발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11) Energy Market Regulation Board





- 터키 정부는 2013년 8월 국영발전회사의 발전용량 25,000MW 중 16,000MW가 민영화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발전소 민영화를 통해 13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터키 정부는 2013년 9월 발전산업내 민간부문 비중이 10년 전 34%에서 2013년 62%로 확대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향후 75%까지 확대할 계획임.
- 에너지거래소 설립 및 운영을 담당할 EPIAS<sup>12)</sup>가 2013년 10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연기되었으며 최근 정관, 규정, 운영원칙이 승인되는 등 설립 준비가 마지막 단계에 있음. 에너지시장규제청(EMRA)은 2014년 7월 전력부문 민간기업에 EPIAS의 주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함.

## □ 에너지믹스 다양화 추진

- 터키 전력의 43.3%가 천연가스를 원료로 생산되고 있으며 가스 수입량의 50% 이상<sup>13)</sup>이 발전소에서 사용됨.
- 터키 정부는 정책적으로 수입연료에 대한 의존과 전력생산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낮출 예정임.
-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화력발전 비중이 축소되지 않을 경우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 확대에 따라 연료수입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추진

- 터키는 2009년 '전력시장 및 공급안보 전략(Electric Energy Market and Supply Security Strategy)'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함.

12) 에너지거래소 운영사(Enerji Piyasi Isletme AS)로 향후 전력 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 거래까지 다룰 계획임. 주주는 TEIAS 30%, Istanbul Stock Exchange 30%, 민간기업 40%로 구성될 예정임.

13) 2011년 기준 53.5%



- 터키 정부는 2023년까지 수력 및 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 비중을 최소 3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수력, 태양열, 풍력에 관심이 커지고 있음.
- 터키는 재생에너지시장 개발 등을 위해 2011년 1월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최종 승인함.
- 새로운 발전차액지원제도<sup>14)</sup>에서는 풍력 및 수력 발전에 대해 KWh당 0.056유로, 지열에너지에 대해 0.081유로, 폐기물에너지 및 태양에너지에 대해서는 0.1유로 수준의 가격을 보장함.
- 유럽 국가 등에 비해 보장가격이 낮은 수준이며 ‘허가된 에너지 생산자’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여 관료주의적 장벽을 높여 민간 투자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음.
- 2013년 12월 터키 정부의 결정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 자국산장비 인센티브 등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제도는 2020년까지 연장됨.

## □ 전력요금을 규제해 왔으나 점진적으로 요금인상 요인을 반영

- 터키는 2002~2008년 사이 국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전력 요금을 동결하는 등 전력요금을 규제함에 따라 국영 발전회사, 배전사 등의 손실이 누적됨.
- 2010년 가격인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2012년 3월 전력생산비 상승분의 원가 반영 등을 위해 가정용 전력요금을 9.3% 인상하였으며 2012년 10월에도 가정용 전력요금과 천연가스 소비자요금이 각각 9.8% 인상됨.

14)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 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함.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하여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중·소규모의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함.



- 2014년 9월 터키 정부는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전력요금과 천연가스요금을 각각 9%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Ⅲ. 향후 전망

#### □ 전력 생산 및 소비 지속 증가 전망

- 2014년 터키 전력생산은 약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인구 증가, 정부의 에너지안보 강화 노력 등으로 인해 전력생산 증가율은 2017년까지 연평균 5.6%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화력발전이 2013년 169.7TWh 수준에서 2017년 202.9TWh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화력발전이 전력생산의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발전비중은 2013년 71.7%에서 2017년 69.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가스발전설비 등의 영향으로 가스화력 발전이 향후 중심적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발전비중은 2013년 43.3%에서 2017년 41.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수력발전 부문의 발전비중은 2013년 24.8%에서 2017년 25.4%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재생에너지 부문의 발전비중도 2013년 3.5%에서 2017년 5.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터키 전력소비는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인구증가, 낮은 1인당 전력소비 수준 및 소비 증가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전력 소비증가율은 2017년까지 연평균 5.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표 3>

터키 전력 생산·소비 현황 및 전망

단위: TWh

	2013	2014	2015	2016	2017
전력생산	236.86	249.39	263.64	277.77	294.27
- 화력발전	169.74	176.59	185.29	194.94	202.91
· 천연가스	102.45	106.85	112.73	118.48	123.22
· 석탄	64.10	66.67	69.47	73.36	76.66
· 석유	3.19	3.07	3.09	3.10	3.03
- 수력발전	58.72	62.54	66.29	68.61	74.78
- 재생에너지	8.40	10.26	12.06	14.23	16.59
전력소비	201.3	212.8	223.4	236.2	248.9

자료: BMI.

□ 유럽과 카스피해·중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에너지 수송허브 추진

- 터키는 카스피해 지역, 중동 지역 에너지를 자국을 경유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등 역내 중요 에너지 수송허브로서의 지위 구축을 추진함.
  - 특히,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카스피해·중동과 유럽의 사이에 위치함에 따라 천연가스 관련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보유하고 있음.
  - 터키는 2014년 6월 러시아의 유럽 가스시장 독점에 대한 대안으로 이라크 쿠르드 정부와 50년 에너지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등 이라크내 쿠르드족 통제지역 매장 가스를 향후 유럽에 수출 추진
  - EU는 2014년 9월 중장기적으로 터키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란산 가스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힘.
-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은 2012년 6월 TANAP<sup>15)</sup> 사업에 대한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9월 사업 착공식을 개최함.

- 컨소시엄의 지분구성은 아제르바이잔 국영기업 **SOCAR 80%**, 터키 국영기업(**BOTAS, TPAO**) 20%임. 향후 양국은 동 컨소시엄에 **BP** 등 외국 석유·가스 기업들을 참여시킬 계획임.
  - 2018년 가스공급이 시작되면 중앙아시아 가스의 유럽 수송비를 절감하고, 남유럽 가스 수급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터키는 아제르바이잔 등과의 합의를 통해 카스피해 가스의 대 유럽 수송노선 간 경쟁에서 주도권 장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을 통한 추가 공급, 쿠르드지역 등 이라크에서의 공급, 투르크메니스탄의 공급 가능성이 있음.

<그림 1> 터키 경유 주요 가스관



자료: Platts.

15) TANAP(Trans-Anatolian Natural Gas Pipeline)은 아제르바이잔 Shah-Deniz 해상 가스전에서 터키를 통과해 불가리아 또는 그리스 국경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2014년 9월 가스관 건설에 착수하고, 2018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임. TANAP 가스관의 수송용량은 연간 160억 m<sup>3</sup>이며, 터키는 연간 100억 m<sup>3</sup>의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TANAP 컨소시엄은 아제르바이잔 국영회사 SOCAR, 터키 국영회사 TPAO, BOTAS로 구성되며 향후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할 방침임.



## □ 전력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수입연료에 의존하는 가스화력발전 비중 축소 추진

- 인구 증가, 정부의 에너지안보 강화노력<sup>16)</sup> 등에 따라 전력생산능력 확대는 터키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또한 터키 정부는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가스화력발전 비중을 축소할 계획임.
- 터키 정부는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가스화력발전의 비중을 축소<sup>17)</sup>하고 자국내 석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스화력발전 비중 축소는 터키 정부의 경상수지 적자 축소 노력과 직결됨.
- 화력발전의 생산능력은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비중은 2013년 62.4%에서 2017년 58.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수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의 생산능력은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비중도 각각 2013년 30.9%, 6.7%에서 2017년 31.7%, 9.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4> 터키 전력생산능력 현황 및 전망

단위: MW

	2013	2014	2015	2016	2017
전 력 생 산 능 력	62,520	66,440	69,650	72,950	76,552
화 력	39,029	41,038	42,369	43,641	44,732
수 력	19,311	20,511	21,629	22,745	24,289
재 생 에 너 지	4,180	4,892	5,652	6,565	7,531

자료: BMI.

16) Wood Mackenzie는 2030년경 유럽의 총 에너지수요 증가분 중 40%를 터키가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함. 이에 따라 터키 정부는 자국의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7) 2020년까지 가스화력발전 비중을 30%로 축소 추진



## □ 장기적으로 전력부문 시장확대 가능성 높아 유망한 것으로 평가

- 터키는 발전 연료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나, 7,500만 명 규모의 인구를 바탕으로 전력시장 규모가 크고, 전력소비<sup>18)</sup> 성장잠재력이 높음.
- 터키 전력부문 시장확대 가능성이 높아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우리 기업은 터키 발전산업에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터키의 지역내 에너지허브 전략 등으로 터키 전력 부문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 2014~2023년 중 전력소비는 연평균 5.4% 증가할 것으로 예상<sup>19)</sup>되며, 2023년에는 중동부 유럽 발전용량의 18%<sup>20)</sup>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주요 전력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전력부문 개혁과 신규 투자가 정부의 최우선과제로 추진되는 등 터키 전력산업의 장기전망은 긍정적임.

작성 :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조사역 김찬수 (3779-5703)  
avik@koreaexim.go.kr

18) 세계은행에 의하면 터키의 2011년 1인당 전력소비는 2,709KWh 수준으로 그리스(5,380KWh), 불가리아(4,864KWh)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임.

19) BMI의 2023년 터키 전력소비 전망치인 341.8TWh를 기준으로 한 증가율임. 터키 정부는 터키 전력수요증가율을 유럽 1위, 세계 2위로 보고 있으며 2023년 전력수요를 500TWh 수준으로 예상

20) BMI 자료이며 2014년은 13% 수준